

교회 호스피스에 대한 소고

박 남 규*

글에 들어가며

요즘 교회 성도들이 입원하였다 하여 병원에 찾아가면 암이라는 달갑지 않은 병명에 시달리며 고통으로 그들의 삶에 큰 혼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5년 동안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론으로 내세우는 일반적인 호스피스 이론, 소위 3개월에서 6개월 남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대상자들을 그들의 남은 삶에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한 투병과 안녕을 위해 지지하고 섬기는 사역이라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정의만으론 무엇인가 교회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호스피스와 여러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호스피스 섬김에 적절한 인적으로나 정서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영적으로 잘 준비된 섬길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호스피스의 개념을 갖고는 교회에 소속된 환자나 또 봉사자나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어 있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호스피스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대상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그들을 섬겨 줄 수 있고,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하는 섬김과 봉사자가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로 다가와 호스피스의 섬김을 거부하거나 처음 혐오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이미지의 개선과 원활하고 더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호스피스 접근의 시작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과 명칭 변화의 새로운 시도를 접근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에 정립된 호스피스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호스피스에 적절하도록 섬김의 영역을 좀더 확대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1. 교회호스피스 이론과 기존 호스피스 이론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2. 교회 호스피스 사역의 성경적인 배경
3. 교회 호스피스 철학과 정신
4. 교회 호스피스의 필요
5. 준비된 교회 호스피스 봉사자들에 대한 요구
6. 큐블러 로스의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5 단계를 통

* 사랑의교회 호스피스 담당목사
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

- 한 영적 돌봄
- 7. 교회 호스피스의 섬김 이론
- 8. 교회 호스피스 섬김의 주의할 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전하며

1. 교회호스피스 이론과 기존 호스피스 이론과의 차이점 인식하기

현재 호스피스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3개월에서 6개월 남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에 그 남은 기간동안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인간답게 남은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인간답게 살아가는 존엄성의 극대화를 위해 삶을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죽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교회 호스피스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제 환자들은 암이나 불치병이란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하는 날이나 이제 말기환자입니다 라는 판단의 기준 시점이나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모든 투병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될 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우리 교회호스피스가 섬기는 환자들의 봉사자들은 과연 말기환자라는 면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렇지 않는 환자들은 뒤로 물러서있으라 해도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교회 호스피스는 죽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사역, 곧 생명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

한국호스피스협회의 표어가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입니다” 라는 문구처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긴다면 환자들이 암이나 불치의 병이란 판단이 내려지는 시기에서부터 환자들의 곁에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런 투병이 시작부터 잘 훈련된 봉사자들로 인해 평안한 투병이 될 수 있고, 설령 이 대상자들이 말기 상태가 되어도 미리 준비된 투병을 통해 보다 나은 투병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기에 호스피스 또는 호스피스 봉사자란 용어는 병원이나 시설을 통해서 사용되어 지는 것은 환자들의 인식까지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호스피스라는 용어는 보다 넓은 차원으로 접근하여 “전인돌봄” 또는 “전인케어”라는 등 다른 용어를 개발 할 필요를 느낀다.

교회 호스피스에서는 대상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남은 가족들을 섬기는 사별관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다.

복음을 통한 사별관리는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회복을 위한 사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처럼 호스피스의 사역의 장을 넓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교회의 사역이 이미지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어 실질적인 사역의 접근이 어려워 소외될 수 있는 환자들과 그 가정들이 더 폭 넓은 사역의 장으로 끌어들이므로 풍성한 열매를 얻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 교회 호스피스의 성경적인 배경

예레미야 29장 11절-14절.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섬긴다.

그러기 위해 11절에서 환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재앙 같이 보이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인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할까, 성경에서 2가지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12절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선 먼저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환자 자신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통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장래 소망” 이루신다는 신뢰를 갖도록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환자들의 품고 있는 믿음은 현실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도저히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난기에 긍정적인 믿음보다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에서, 그래도 투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믿

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한다.

환자들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실상 즉,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소망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 권면을 위해 히 11장6절의 말씀을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문제를 갖고 나오면 반드시 믿음의 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환자들에게 실상을 믿음을 통해 투병할 의욕을 갖도록 권면했다고 해서 바로 투병을 잘 감당하리라는 생각은 환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임을 알 수 있다.

왜냐면 환자 자신에게 닥쳐오는 순간순간의 불확신 또는 불안, 염려, 공포가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투병하도록 사단이 놓아두질 않는다.

환자 자신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환자들은 자신의 투병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실패한 것 같은 평안과 소망을 다시 소유하도록, 환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투병을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과 14절의 초반부 말씀을 적용 시켜 준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14절 초반부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는 말씀을 적용시켜 준다.

하나님은 우릴 만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뜻하는 것이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포기과 절망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영적 싸움을 위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풀이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 3장 14절)”란 의미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왜 하나님께서 환자 자신을 위해 스스로 계셔서 찾아 오시고 여호와가 되셔야 했는가를 말해 준다.

그 의미는 “그 환자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통해 그 환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자신의 낙심과 염려, 불안과 불확신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도록 섬긴다.

이 영적 전쟁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능력 통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병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저주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길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그 분이 우리의 슬픔, 염려, 고통을 평화가 되게 하시며 우릴 위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된단던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확인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 하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능력을 환자 자신에게 소개 시켜 주고,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네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말씀하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 환자 자신에게 적용시켜 줌으로 믿음을 갖고 영적 회복을 갖고 투병하도록 섬기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예레미야 29장 14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음, 즉 평안과 소망이 있는 “본 곳(천국이 포함 된)”으로 돌아오는 투병을 환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특별히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은 환자의 육체적인 치료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섬김이 되도록 해야 한다(데살로니카전서 1장 5절 6절).

죽음의 고통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고 아무도 그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체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누가 막아주고, 누가 이 방향 없는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로마서 6:3-5).

호스피스는 하나의 보살피는 공동체요, 암이나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의 투병과 남아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죽음이라는 한 새로운 삶의 형태 변화가 왔을 때 지지해 주고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실의 고통을 도와 줄 수 있는 일에 누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 한 영혼, 한 가족을 위해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몫이고 당연히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곧, 교회 호스피스가 해야 되는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사회 봉사적인 차원이거나,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지막까지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기로에서 섬김을 통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역이 교회 호스피스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섬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청지기적인 사역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이 풍성하신 것이다.

3. 교회 호스피스 철학과 정신

1) 일반 호스피스의 철학

호스피스 운동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존엄성에 대해 경시와 노인소외, 임종자에 대한 소홀, 그리고 윤리관 및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

났다.

부분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신체적, 사회적, 영적 또는 그 이상의 합(合, sum)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총체주의(holism)적, 인간은 여러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사상과 철학을 기반으로 호스피스의 이론과 실체가 발전되어 왔으며, 과거의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의 개념(care) 및 그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연민(compassion)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이 돌봄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철학은:

(1) 호스피스 대상자(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 한다.

(2) 호스피스 대상자의 여생을 가능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준다.

(3) 호스피스 대상자가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4) 호스피스 환자의 여생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만큼 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지하여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환자로 하여금 소외된 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2) 교회 호스피스 정신

(1) 호스피스 봉사자가 만나 봉사해야 할 대상은 일차적으로 말기환자이다. 그래서 대개 말기환자는 말기치료의 시기, 죽음의 시기, 그리고 미래의 시기 등 세 시기를 맞는다.

(2) 그래서 이들을 대하는 호스피스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어야 한다.

(3) 말기환자는 비록 의학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라도(임종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인간으로서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남은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지지할 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찾아오는 심적, 육적 극심한 통증을 조절(pain control)하고 경감시키는 보살핌에 이르기까지의 섬김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4) 호스피스란 마지막 순간을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며 서로의 사랑과 신뢰 안에서 어둡고 외로운 죽음의 여정을 물리치고 소망과 평안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체험하게 하는 데 있다.

(5) 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이 다 함께 죽음을 엄숙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이 인생의 최후가 아니라 다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평안히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도록 하려면 역시 사랑 없이는 안 된다.

(6) 호스피스의 섬김은 중심에서 우리나 사랑의 실천, 예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훈련이다.

(7)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영적 소망과 내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말기환자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8) 그러나 호스피스 케어가 전도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이 되게 해야 한다. 호스피스 사역의 섬김의 수단은 환자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섬김을 통해 환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게 예수님께 하는 것 같은 섬김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는 환자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섬기며, 궁극적인 목표에 영혼 구원을 두는 것이다.

(9) 호스피스 활동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적응하고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의 숭고한 나눔 운동”이다. 즉 생명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하며, 치료의 개념(Cure)을 뛰어 넘어 보살피고, 돌보는 섬김의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모든 암이 다양한 것처럼 말기 환자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성별이 다르고 교육과 경제의 수준이 다르고 환경과 나이도 다르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felt need)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호스피스 봉사자도 이에 상응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봉사자 훈련에 성경적 상담 교육과 인간 이해의 교육도 필요하다.

4. 교회에서의 호스피스의 필요성

(1) 교회 호스피스 대상자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일반적인 호스피스 대상자는 Terminal Care인 말기 상태에서 호스피스 대상자라야 한다하지만 교회에서의 호스피스 대상자는 암이든 불치병에 판정 받은 시점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될 것 같다.

(2) 이때 케어 대상자들과 가족들을 섬김에 있어 좀 더 폭 넓게 그리고 전인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다.

(3)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보통 자신의 4가지 고통을 거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고통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여러 증거들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불들려 있다.

① 교회 안에는 이런 고통 받는 자를 위해 훈련된 영적인 지지자들이 많다. 그러기에 끝까지 이 환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자원이 있다.

② 이렇게 훈련된 많은 지지자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언제나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③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한 영혼 뿐 아니라 그 가족을 섬기기에 구원하고 전도할 대상이 가족 단위이고 열매가 확실하다.

④ 세상의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가족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 복음의 큰 확신을 누릴 수 있다. 또 확신이 있기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다.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 홀로 된 가정에게 위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에 성도들이 활기 있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 한다.

⑤ 교회에서 훈련된 많은 자원의 재배치. 교회에서 봉사자를 통해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발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교회 내 개인주의를 몰아내고, 「우리」를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의 50-60대의 빈 등지 콤플렉스를 몰아내어 건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 주어 산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사역을 통해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상실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이 상실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다 보면 많은 환자 자신 뿐 아니라 환자들로 인해 환자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진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

@교회 호스피스의 필요성 정리

- (1) 하나님 생각을 회복함으로 자녀 된 권세 회복
- (2) 교회의 연약자 세움
- (3) 행함이 있는 성도
- (4) 상실감을 회복함으로 교회의 본질 회복
- (5) 사역의 다양성을 주어 교회 자원의 재편성

교회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우리의 대상자들이 좋은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갖고, 남아있는 갈등을 줄이며, 삶이 고독하지 않음을 알며,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 회복하며, 죽는 순간까지 소망과 기쁨을 가지며, 평안 있고(빌4:7), 하나님의 평강(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확신, 지지자가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죽음. 특히 교회 호스피스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유도하는 일을 한다.

우리가 섬기는 환자는 이미 죽은 자(death)가 아닌 죽어가고 있는(dying)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 평안과 소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최선을 다해 영원한 삶으로 살려야 한다.

우리의 섬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유도한다. 임종 때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찬송을 통해 큰 영적인 혼동에서 벗어나 평안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섬긴다.

호스피스는 지금까지 의료 행위와는 다른 보살핌이다. 새로운 삶과 죽음의 철학으로 감동을 받고 목표도 다르게 세우고, 암 환자들에게 보살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5. 준비된 교회 호스피스 봉사자를 위한 필요한 요구(Volunteer)

환자에게는 플라시보 효과가 작용 한다. 그러기에 환자들에게 봉사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결과를 준다.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을 위한 준비된 요구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호스피스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죽고, 영원히 살아남는 체험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호스피스로 소망 없고 낙심하여 고통 받는 자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14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 동기가 좋을 것(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利他)의 정신을 갖고, 희생 감수하는 섬김이 필요하며 도구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눅. 10:30-36 선한 사마리안)

② 정서적으로 성숙할 것(말기환자의 공통적인 아픔은 불안과 두려움, 고독이다. 때론 우울과 분노 등 감정의 변화가 크다. 이때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힘든 사역을 감당한다.)

③ 포용력(관용)이 있을 것(환자의 입장을 전적 수용, 환자의 환경, 교육 수준, 성품과 경제력, 심지어 아픔의 실상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며 혼자서는 정말 힘든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④ 성품이 온화(신중)할 것(인내심과 신중함 지녀야 하며, 대강 대강 해치움은 환자에게 금물.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품을 수 있는 성품이어야 한다.)

⑤ 입이 무거울 것(환자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환자의 발병을 자신의 탓, 또는 가족의 탓으로 돌려 원망과 비난의 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환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언급되어 지는 경우가 있다.)

⑥ 신뢰성이 있을 것(모든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

⑦ 경청을 잘 할 것(따분해 하거나 건성으로 하지 말 것. 표정관리 중요)

⑧ 협동성(융통성)이 있을 것(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규정해 놓은 일 외에도 해내는 협동성을 가져야 한다.)

⑨ 숙련된 재능을 갖출 것(시트를 갈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시키는 일 등이 생길 수 있다. 성경도

읽어 주어야 하고, 찬송도 필요할 때 있다.)

⑩ 유머러스할 것(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다. 재미있는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필요시 적절히 사용.)

⑪ 건강할 것(사랑의 실천자로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마음을 지녀야한다. 내가 건강해야 도와줄 수 있다.)

⑫ 구원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자체가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감을 가질 것. 봉사자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⑬ 자원 봉사자 공동체의 협조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사랑으로 준비되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⑭ 자신의 죽음을 늘 대비하는 자일 것.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요 사역이 되어야 한다.

6. 교회 호스피스 큐블로 로스의 5 단계를 통한 영적 케어

(참조*호스피스학술지 5(1)에 풀이된 내용이 있음)

1) 부정단계(denial)

거부감 형성, 진단이 잘못. 나는 병에 걸리지 안 했다. 부정은 상실의 고통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며, 믿기 어려운 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심방 때는 육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함.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14절, 시편 23편과 같은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가 좋다.

찬송은 제목 분류: 인도와 보호, 은혜와 사랑, 신뢰와 확신, 시편과 극복 등의 찬송

2) 분노의 단계(anger)

“왜 하필 나이어야 하나”는 절규와 과민한 반응을 나타낸다. 분노는 상실을 경험할 때 표면화 될 수 있으며, 운명론에 빠지기도 한다. 분노의 느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자의 과민한 반응을 인격화해서는 안 된다. 심방 때 질병 치료 방법이 있음을 다시 주지시킨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 시편 3편, 찬송은 제목 분류: 예수 그리스도, 인도와 보호 등이 좋다.

3) 협상의 단계(bargaining)

죄의식이 형성되며, 초인적인 능력이나 소망과 언약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함. "한번만 기회를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호스피스 봉사자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유도하며 환자에게 육체적 치료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중요함을 주지시킨다. 사이비 종교자 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발 맛사지, 스킨 쉽(skinship)도 필요하다. 환자가 자주 회개의 마음을 토로한다. 이때 기도생활을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는 민수기 13장 25절-14장 9절, 이사야 40장 27-31절 등을 통해 환자의 신앙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때 부를 찬송은 우선 환자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면 더욱 좋다.

제목분류: 회개와 사죄, 신뢰와 확신, 기도와 간구, 주와 동행, 소망 등이 좋다.

4) 우울의 단계(depression)

고독감 느끼고, 우울과 비탄이 형성이 되어 죽음을 투쟁의 대상에서 자기 애도로 바뀐다.

대부분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정, 공포, 염려를 갖고 있다. 죽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 준다. 방문객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죽음을 수용하려는 감정적 준비 상태를 방해받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날 환자 자신이 소망과 확신에 찼던 말이나 행동을 회상하도록 격려해 주고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때 볼 수 있는 성경은 시편 121편, 18편, 이사야 53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찬송의 제목분류: 천국, 인도와 보호, 소망, 평안과 위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수용=용납의 단계(acceptance)

무감동, 무기력형성, 부정적인 수용이 온다. 이때 긍정적인 수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상황의 호전과 급반전이 자주 반복된다. 관심세계가 좁아져서 외부 세계의 소식이나 복잡성을 싫어한다. 인간의 실존을 회복함으로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어서 “나는 아직 가치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도록 도움을 주어야.(환자 자신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생활 가능)

또 이 단계에서는 분노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요일 4: 7- 14.

찬송은 제목 분류: 예수 그리스도, 분투와 승리, 속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7. 교회 호스피스 심방의 실제

* 교회 호스피스 섬기는 자로 활동 원한다면 (1) 성경을 많이 읽고, (2)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3) 성경을 외우고, (4) 폭 넓고, 깊게 기도하고, (5)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건 환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서
- (1) 깊은 묵상으로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 (2) 자연스러운 대화를 행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환자의 말에 경청한다.
- (3)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왔는지를 첫 방문 때 이해시킨다.
- (4)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를 기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하게 긍정적으로 경청.
- (5) 환자가 갖는 영적인 고통과 실제적 현재의 상태를 체크하고.

A. 첫 섬김

- * 첫 방문에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현재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
- * 자기 연민적인 믿음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 *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사. 53장 2절-4절을 갖고서 강건케 하시길 원하고 계신다.
- * 십자가의 공로를 갖고 육신의 절고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 *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회복해야
- * 찬송하되, 환자 자신이 잘 부르는 찬송을 택한다.
- * 가사를 묵상하고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 * 이 때 기도는 환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을 갖고 호스피스는 기도해 주어야
- * 말씀을 기록하여 냉장고 등 가재도구에 자신의 눈높이에 붙여 놓고 묵상하게.
- * 방문이 끝나면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대접하러 든다. 대접을 정중히 사양해야 한다.
- * 방문에 관한 헌금 봉투를 받지 말라.
- * 방문을 할 때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 주어야.
- * 호스피스는 가능한 팀을 만들어 주라.
- * 호스피스는 대부분 한을 들어 주어야 하니 피곤하다.
- * 방문할 때 무슨 말이든지 내가 먼저 꺼내야 된다거나, 또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야.
- * 전문가가 아니라는 잘못 인식된 인식 속에는 자원 봉사 자체를 시시하다 생각.
- * 호스피스 봉사자는 신실해야 하며, 환자와 한 약속은 꼭 그 약속을 지키라.
- * 호스피스는 환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한다.
- * 환자 자신의 영적 지지상태는 대부분 3일 이상 지나지 않는다.
- * 말씀을 적용할 때 특별히 언어,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 환자와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위해 싸울 수 있다.
- * 우리가 환자를 맡은 그 시간부터 실은 엄청난 영적 싸움.

B. 두 번째 이상의 방문

- (1) 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또는 내 주관을 갖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 (2) 호스피스 자신의 불쾌한 일이 있으면 방문을

한 템포 늦추어 방문할 필요가 있다.

- (3) 방문 시 하품이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도록 할 것.
 - (4)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 주는 것이 환자에게 중요하다.
 - (5) 방문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짐을 서로 저 주되 환자 편을 들어주고, 교회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 절제도 해야 한다.
 - (6) 환자에게 예의를 갖고 대하되, 언제나 환자의 허락 하에 무슨 일이든 행할 것.
 - (7) 환자가 마음을 열지 않는 데도 집요하게 묻는 것은 피해야 한다.
 - (8) 방문 시 빈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 가운데서 손을 사용하여 마음으로 말함.
 - (9) 방문 때 육신의 치료를 확신 주었으면, 육신 + 영혼 구원을 말해야 한다.
 - (10) 어느 환자의 고백을 들어 보라. “환자는 더 없이 나약하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만큼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 주고, 앉아주고, 손을 얹어 주십시오.”
- * 공감대를 일으켜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 * 투병을 잘 하던 환자도, 환자의 영적 상태가 연약해지면 육신도 더욱 약해진다.
 - * 호스피스에 환자에게 신뢰를 줄 때 환자의 영적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 *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염려나 두려움에서 “shalom(Shalom)”을 외치게 해야 한다.
 - * 인생에서 죽어 가는 삶은 중요하다. 영원한 삶의 한 과정이기에
 - * 죄의식에 싸여있는 환자라면 로마서 8장 33, 34 절이 좋다.
 - *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 십자가 고통 속에서 자신 고통을 포기할 수 있다.
 - *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환자에게 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음을 기억.
 - * 기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환자에게 혼란을 준다.- (1) 내게 믿음이 부족한가? (2)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3) 하나님께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4) 회개가 부족한가? (5) 선행을 더 행해야 하는가? (6) 용서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 등등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8. 교회 내에서 호스피스 사역의 장점, 조심할 점

1) 장점

- ① 말기상태(terminal station)에 들어온 환자를 돌보는 데 영생과 천국의 소망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요 섬김의 결정이다.
- ③ 호스피스 케어는 교회 내에서 개인주의를 몰아내고, “우리”를 회복한다.
- ④ 자원 봉사자를 확보함으로써 평신도들을 사역의 현장에 동참시켜 교회 사역의 분담.
- ⑤ 호스피스는 부활의 확신으로 결과적으로는 섬기다 보면 전도의 귀한 무기가 된다.
- ⑥ 교회 내에서 홀로 되고 소외된 자들을 케어로 회복이 이루어짐
- ⑦ 교회 내의 50-60대 빈둥지 열등감이 쓸모 있는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
- ⑧ 교회 내에는 환자를 돌보아 줄 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믿음, 봉사, 찬송 등)
- ⑨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 언제나 위로가 풍성하다.

2) 조심해야 할 점

- ①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나 이 믿음이 너무나 커서 연약한 환자의 믿음을 질책하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 ② 교회 내에서 자원봉사자는 교회 특성상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말 잘하는 것 보다 잘 들어주어야
- ③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다룰 수 있다.
- ④ 교회 내에서 문제는 말이 너무 쉽게 퍼져 버린다는 것이다.
- ⑤ 죄의식을 자꾸만 심어 줄 수 있다(회개 할 것 없어? 라는 질문 등).
- ⑥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한다고
 - * 울지 마라!
 - * 시간이 지나면 잊겠죠!
 - * 하나님의 뜻이다!

- * 과거에 짐착하지 말라!고 하지말자
오히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⑦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의사와 의약품 포기, 영양식 포기, 금식 요구 등
- ⑧ 호스피스 활동으로 영적인 교만이 올 수도 있다.
- ⑨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란 말을 하지 말라.
- ⑩ 당신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기쁨으로 물리치십시오 등의 빈말보다는 더 가까이에서 풍성한 위로자가 되어 주자.

9.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소개

1)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봉사자는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16주간의 교육을 필한 사람들이 사역을 섬기고 있다.

-가정 호스피스 대상자는 a)지역 담당 교역자가 각종 암, 말기환자가 있으면 호스피스 담당교역자에게 명단을 제출하고 b)교회의 각종 기도회의 기도제목의 수집과 c) 환자나 봉사자가 연결하는 환자를 호스피스 담당 교역자가 심방을 실시한다.

이때 환자와 자원봉사자 간의 연결은 호스피스 담당교역자가 방문 한 후 여자는 수요일 여자 봉사자 호스피스 모임, 남자는 주일 남자 호스피스 봉사자 모임에서 환자의 정보를 보고해 주며 자원봉사자를 연결한다.

-병원 호스피스 대상자는 섬기는 병원(영동세브란스 3개 팀, 삼성제일, 보라매, 고대 안암 병원, 원자력 병원, 사랑의 쉼터, 중앙대 병원, 국군통합병원)등의 원목실, 사회사업과 에서 추천하는 환자를 섬긴다.

2) 호스피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팀으로 연결을 하고 있으며, 1주에 1회 이상 2회 환자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환자에 원칙적으로 3인의 봉사자 연결)

현재 우리 호스피스 팀의 구성은 가정 호스피스로 남자 7개(가정 6개)팀, 여자 23 개 팀(가정-13개 팀. 병원 - 9개 팀, 찬양 - 1개)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한

팀당 6-15명의 가정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에게 5-6명의(월 평균 95-100여명) 환자를 섬기고 있다.

3) 섬기던 환자의 임종은 자원 봉사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준다. 이 충격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매주 모임(남자: 매주 주일 07:30 / 여자: 매주 수요일 10:00)을 갖고 있으며, 이 모임을 통해 환자에 대한 보고와 기도회 서로의 섬김에 대한 방법과 간증을 통해 더 좋은 섬김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섬기는 여러 훈련과 영적인 충만을 꾀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련회 통해 호스피스 공동체 의식과 영적인 충전을 도모한다.

4) 매년 12월(크리스마스 前 주 월요일) “호스피스 가족의 밤” 행사를 실시하며, 호스피스 봉사자와 그 가족 또, 환자와 환자 가족, 홀로된 가족과 협력 기관 및 유사 기관을 초청하여 그 해의 사역 사례를 보고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5)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사랑의 치유 캠프(3박4일)”를 실시하는데 이때 호스피스와 살롬회, 주바라기, 사랑의 울타리, G. F(Good Father, Good Friend : 좋은 아빠, 좋은 친구) 팀을 위한 치유캠프를 통해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도록 섬긴다.

이 사역을 위해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는 1992년 2월 1일 자원봉사자 6명으로 시작하여 2006년 4월 19일 현재 담당 교역자 2명, 남자 50명, 여자 180명이 자원봉사자로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의무 교육: 16주간(봄과 가을(12주간) 실시)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또 매주 모임에서 이뤄지는 자체 교육으로 상담, 치유, 전도, 건강 생활 등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간의 인간적인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년 4회의 자체 수련회와 매주 환자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언제나 재충전을 시도하고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시간은 팀을 이루어 주 1-2회 환자와 봉사자 간에 지정된 환자 방문과 환자 임종, 장례 등을 도우며, 유가족들을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 선교를 위해 선발한 11개 팀은 병원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전도하며 섬긴다.

6) 호스피스대상자 :

1. 사랑의 교회 교인 중 각종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
2. 사랑의 교인 중 만성질환자로서 영적, 육체적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
3. 사랑의 교인의 가족 중 위와 같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4.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매우 어려운 환자

7) 환자를 호스피스에 연결하는 방법 :

1. 지역담당 교역자가 심방 후 각종 암 환자, 장기 환자가 있으면 호스피스 담당자에게 명단을 제출하고 호스피스 담당교역자가 심방하여 연결된다.
2. 위와 같은 환자들을 호스피스 지도교역자에게 연락하여 지도교역자가 심방 후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연결한다.

우리는 매주 100여명의 환자를 섬기며,

섬기는 환자의 소천 하는 인원은 년 인원 130~150여명 정도의 환자가 소천을 한다.

봉사자가 봉사하는데 활동의 원활 함을 위해 봉사자 활동비로 환자 일인 당 월 5만원(환자를 위한 식품등 구입비)을 보조하며,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려운 환자들에게 월 300-500만원 정도를 병원비를 보조하고, 또 월 2회 사별관리로 남은 가족들을 위해 모임을 갖고 이들의 상실된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섬기며,

매년 크리스마스 전 주 일요일은 호스피스 가족의 밤으로 호스피스 봉사자, 대상자, 홀로 된 남은 가정, 그리고 봉사자 가정과 호스피스 유관 단체에게 그 해의 사역을 보고하고 함께 재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현재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유관된 기관과 연계하여 사역을 나누고 있다.

1) 한국 교회 호스피스 협의회- 호스피스 교회들의 모임을 통해 호스피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의 저변 확대, 발전을 시키기 위한 모임으로 전국 여러 지

역이 서로 협력하여 연약한 환자들이 예수 안에서 투병 할 수 있도록 섬기며 환자와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다.

2) 한국 호스피스 협회: 한국 개신교 호스피스 연합체로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

3)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와 대한 적십자사: 장기 기증과 이식, 골수이식, 헌혈 운동과 선별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함께 사역한다.

4) 한국 자원 개발 연구회, 무지개 호스피스, 수원 기독교호스피스, 인천호스피스센터, 안양, 과천, 총신, 갈보리(모현) 호스피스, 일산 암센터, 이대, 연대 등 호스피스 여러 기관과 자원 봉사자 교육등으로 함께 섬기고 있다.

현재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는 환자들의 가족들이 지쳐있을 때 저들을 섬기고, 환자의 영적인 케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전인치유 센터를 위해 준비 중이다.

@사랑의 교회 2006년 호스피스 예산 : 222,700,000원

:호스피스 봉사자의 활동비와 사별 관리 운영과 각종 행사(호스피스 가족의 밤, 사랑의 치유 캠프, 수련회 등)

@발간 서적 및 소식지: 1999년 12월 20일 국민일보사 간 "호스피스 아름다운 봉사자" 2003년 국민일보사 간 "호스피스와 사별"(예정).

소식지: 에셀나무 1999년 겨울 창간, 2000 여름, 겨울, 2001~2004년 여름, 겨울, 2005년 3회 발간.

또 사별관리로 1994년 7월 살림회가 조직되어 혼자 된 가정을 섬기다가, 1997년 1월 주바라기 팀이 조직되었다.

현재는 사별관리에서 섬기는 공동체로 사별 후 2년 미만의 주바라기 팀과 사별한지 2년 이상 된 살림회 1팀(55세 미만 여자)과 살림회 2팀(55세 이상 여자)로 나누어 섬기고 있으며, 1998년 9월에 혼자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사별의 상실감으로부터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을 위한 사랑의 치유캠프(98년, 99년 -치유 캠프. 2000년 드림 캠프. 2001 섬김, 2002 자아발견, 2003 자아발견, 2004, 2005 업그레이드 된 사랑) 활동으로 섬기고 있

다. 또 혼자된 남편들의 모임인 G.F모임(Good fathers, Good Friends)이 2000년 5월부터 개별적인 섬김을 통한 모임을 갖고 있다.

또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는 호스피스에 관심 있거나 교회에서 호스피스로 섬기는 교역자들의 모임인 한국 교역자 호스피스 협의회와 한국 호스피스 협회 등 여러 호스피스 단체와 사랑의 장기 본부, 대한 적십자사 등과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다.

8)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영적 충전: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영적인 충전을 위해

(1) 매주 모이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한 전체 중보기도와 팀별 모임에서 영적인 충전을 누리고,

(2) 년 4회의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봄, 가을에는 1일 수련회로, 여름과 겨울에는 2박3일 정도의 수련회를 통해 영적, 육적인 충전을 함으로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언제나 충분한 사역을 감수함으로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매 년 호스피스 가족의 밤으로 그동안 일 년의 사역을 결산하고 보고하며,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자신들과 그 가족, 그동안 우리가 섬겼고 또, 현재 섬기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과, 혼자 된 사별가정들의 가족들,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를 후원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유사 사역을 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단체들과 후원 단체들이 초청이 되는 아름다운 행사를 갖고 재충전하고 있다.

9)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교육 프로그램: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봄 16주, 가을 12주의 교육을 한다.

교육 과정은 16주간 진행되는데 “호스피스, 사별관리 이론, 봉사자의 자세,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적 케어, 찬송 통한 호스피스 케어, 대체의학의 치유케어, 죽음에 대한 법적 및 유언 상속,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애니어그램을 통한 호스피스, 에이즈에 대한 이해와 환자관리,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 완화, 사별가정의 청소년 문제해결, 호스피스 봉사자의 소진과 재 관리, 호스피스와 이벤트, 호스피스 관점에서 본 죽음의 이해 등 년 1회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좌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수 백여명의 봉사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 배출이 되었고 현재도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200여명의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이 매주 30개 팀으로 나뉘어서 가정호스피스와 병원호스피스(12개 팀)으로 혼합형 호스피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호스피스는 극소수의 임원과 팀장 체제로 되어 있다. 보통 한 환자마다 3명의 봉사자를 원칙으로 하고 사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호스피스의 자원 봉사자 수는 아직도 부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병원 호스피스 같은 곳에는 매주 새롭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초신자들이 10가정 전 후로 새롭게 태어날 정도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의 장이 되고 있고, 가정 호스피스 환자의 1/3은 새롭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투병을 시작하는 환우들이다.

호스피스 활동은 환자들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죽음을 앞에 놓고 투병을 하는 상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영적 케어를 통해 투병을 고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정의하라면 “죽음은 영원한 치유”라고 정리하고 싶다. 그러기에 투병하는 환자들이 최선을 다해 투병하고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겠지만 우리 환자들도 그들의 삶에 영원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도록 섬기고 있다.

10)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사역 조직.

1992년 2월 1일 담당 교역자로 박남규 목사, 자원 봉사자로 6명의 자원 봉사가 첫 봉사를 시작함으로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태동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교회의 특수 선교부서에 해당되며, 담당 지도 목사로 박 남규 목사와 임원으로 고문, 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씩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가정19(남자 6개)개의 팀, 병원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 팀에는 1명씩의 팀장을 두어 팀원(한 팀원은 6-15명)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팀장은 자신의 팀의 모든 환자의 상태를 체크, 보고하고 언제나 자신의 팀

원을 위해 영적인 파수꾼이 된다.

임원진의 각 역할:

고문 : 증경 회장단으로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섬김.

회장 : 담당 교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호스피스 봉사자를 돌보고, 섬기며, 예배를 인도할 때 중심 역할을 하며 아울러 전체를 리드하며 환자를 위해 봉사자를 관리하며 호스피스 전반에 걸쳐 항상 책임지고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임원회의와 팀장간의 회의를 주관 또 조정한다.

총무 : 담당 교역자와 회장을 보필하고, 전반적으로 호스피스 자체의 행사등 제반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언제나 봉사자 회원 관리와 융화를 주도한다. 또, 총무는 모든 회의와 모임에서 회장을 도와 주도적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 해 섬김에 본이 된다.

서기 : 모든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관리와 유지의 행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자원 봉사자의 전반적인 문서적인 섬김을 감당하여 호스피스 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

회계 : 호스피스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데 언제나 주님에게 섬기듯 하며, 봉사자들의 활동비와 극빈 환자 보조금을 관리 집행한다.

팀장: 팀장으로 각 팀에서 섬기는 환자를 항상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 안에서 섬김에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며, 팀원의 사기와 화합을 위해 섬긴다.

글 마무리

교회 호스피스는 많은 인적 자원과 섬길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갖고도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가장 낮은 자들을 소외당한 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회마다 호스피스 사역을 특성화하여 마지막 소망 없는 환자들에게 온전한 투병을 위해 잘 섬길 수 있게 그리고 평안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다.

교회들이 생명을 위한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호스피스 대상자이면서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과 평안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서적

박남규 : “호스피스 아름다운 봉사자”(국민일보 사)
김미자 : “짧은 만남 긴 이별 영원한 만남”(새순 출판사)
김수지, 오송자, 최희숙 : “호스피스-사랑의 돌봄(수문사)”